

우리나라 일부 청소년의 AIDS관련 지식, 태도에 관한 문헌고찰

계수연 · 문인옥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Analysis of AIDS-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of Korean Adolescents

Su-Yeoun Kye · Inok Moon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adolescents' perceptions of AIDS by reviewing the research findings on adolescents'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IDS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Literature for the analysis was searched by using the terms 'AIDS', 'HIV', 'Adolescent', 'Student'. Finally, 17 articles from Korea and 3 from abroad were analysed.

Major conclusions were as follows:

1. For the knowledge level of AIDS, most of the adolescents knew the definition, high risk group, and infection rout of AIDS. On the contrary, the knowledge level of the treatment of AIDS was low.
2. For the attitudes toward AIDS, the level of perceived severity was high. But the level of perceived susceptibility found to be low.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AIDS patients tha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AIDS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were positive, but taking the blood test for the detection of AIDS was negative.
3. The experience rates of AIDS Education were ranged from 13.6%to 60%. Major channel for getting AIDS information were TV, newspaper and radio. The experience rates of sexual intercourse were ranged from 4% to 48.3%. The intention of using condom was 66.7%, but the rate of condom use was 38.4%.

AIDS infection rat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among teens in recent years. Therefore, It is urgent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affecting AIDS related perception and preventive behavior, and to develop the prevention program for AIDS.

Key Words : AIDS-Related Knowledge, AIDS-Related Attitudes, Adolescent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AIDS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이다(오세근, 2001). 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AIDS환자가 공식 발표된 후 2001년까지 전세계 AIDS감염자 규모는 4,000여 만 명에 이르고 매년 500여 만 명이 새로이 감염되고 있다(WHO, 2001). 우리나라의 경우 1985년 처음 감염자가 보고된 후 해마다 감염자가 증가하여 2004년 9월말까지의 누적 감염인수는 2,994명이며 이 중 591명이 사망하여 2,403명이 생존해 있다.

AIDS바이러스는 수혈, 수직감염, 약물주사 등의 방법에 의해서 전염이 가능하나, 대부분 동성이나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4년 1월말부터 9월말까지 우리나라 신규 AIDS 감염인은 455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8명에 비해 14.3% 증가한 것이고, 이 중 감염경로가 밝혀진 304명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다. 연령별 발생분포를 보면, 10~20대가 신규 AIDS 감염인의 24.2%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AIDS는 아직 효과가 검증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철저한 보건교육과 홍보사업을 통해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AIDS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1994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HIV/AIDS 교육을 위한 세미나 결과를 보면 HIV/AIDS에 대한 교육은 건강과 관련된 적절한 과목에 통합되어야 하고 의학적 내용 25%, 기술개발내용 50% 정도가 교육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성행위를 시작하기 전인 약 14세 이전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윤희, 1998).

우리나라 청소년 AIDS 교육은 정규교과가 아닌 성교육 및 보건교육의 극히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윤희, 1998; 이계희, 1998). 청소년의 AIDS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이 AIDS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갖고 있는 태도 등에 대한 현황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AIDS 관련 지식을 조사한 문헌을 검색하여 그 중 상호비교가 가능한 2건의 연구를 선정하여 10여년간 우리나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시기에 조사된 문헌을 선정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 태도 등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AIDS 예방교육 내용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0여년간 우리나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유사한 시기에 조사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 태도 등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AIDS 예방교육 내용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의 변화를 파악한다.
- 셋째,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넷째,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관련 태도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AIDS 관련 지식, 태도를 파악하여 AIDS 예방교육을 위한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며 연구설계는 문헌 고찰을 통한 조사연구이다.

2. 문헌검색방법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전문잡지 및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차 검색으로 서명키워드 '에이즈', 'AIDS', 'HIV',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이용하여 학위논문 197건과 잡지기사 622건을 검색하였다. 이 중 2차 검색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과 태도를 연구한 학위논문 8건, 잡지기사 39건을 분류하였다. 3차로 원문수집이 가능하고 단순기고문이 아닌 전문잡지 및 학술지에 게재된 AIDS 지식, 태도 관련 논문 16건을 분류하였다. 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3건이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13건이었다.

3. 검색문헌

AIDS에 관한 지식, 태도 등의 조사결과를 상호비교하기 위하여 검색결과문헌의 조사대상, 조사시기, 조사도구 등을 살펴보았다(표 1).

조사도구를 보면 1986년에 Diclement R.J.가 개발한 도구와 신영희가 1995년에 개발한 도구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은 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이 많았고, 조사시기는 1990년에 연구가 시작되어 1995-1998년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4. 최종분석문헌 선정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에 나

<표 1> AIDS 지식, 태도 관련 문헌의 조사대상, 조사도구

연구자 (조사시기)	조사도구	지역	조사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남			여			비보건계열					보건계열								
			1	2	3	1	2	3	남		여			남		여						
윤형렬(1990)	Diclement(1986)	경남																				
김형조(1992)	Diclement(1986)	서울																				
유연자(1995)	장순복(1994)	울산	○	○	○	○	○	○														
남상옥(1995)*	연구자 개발	전라								○	○	○	○	○	○	○	○	○	○	○	○	○
신영희(1995)	신영희(1995)	대구, 경북								○	○	○	○	○	○	○	○	○	○	○	○	○
신영희(1995)	신영희(1995)	부산, 울산								○	○	○	○	○	○	○	○	○	○	○	○	○
오정아(1996)	장순복(1994)	서울, 강원		○			○															
이영주(1996)	연구자 개발	서울, 경기								○	○	○		○	○	○		○	○	○	○	○
조경순(1997)	신영희(1995)	대전																			○	○
이계희(1998)	연구자 개발	대구	○	○																		
손해옥(1998)	Diclement(1986)	-																	○	○		○
전진호(2001)	Diclement(1986)	경남								○	○	○		○	○	○		○	○	○	○	○
박상화(2001)	-	서울, 경기, 경북, 충남								○	○	○	○					○	○	○	○	
송경희(2002)*	Diclement(1986)	대구								○	○	○		○	○	○		○	○	○	○	○
김순오(2003)	신영희(1995)	경기																○	○	○	○	○
강현숙(2003)*	Diclement(1986)	경기																○	○	○	○	○

* 지식만 조사

탄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일한 조사도구를 사용하고, 조사지역과 조사대상이 유사하며, 조사시점에 시기적 차이가 커 비교가 가능한 문헌 2편을 선정하였다. 1990년에 조사된 윤형렬의 연구와 2002년에 수행된 송경희의 연구는 모두 경상도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AIDS 지식을 조사하였으며 사용한 도구는 Diclement RJ가 1986년에 개발한 도구로 동일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일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 태도 등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지역과 조사시기가 동일한 유연자(1996), 신영희(1996)의 연구를 최종선정하여 조사내용 중 동일한 문항만을 추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우리나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의 변화

우리나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0년에 조사된 윤형렬의 연구와 2002년에 실시된 송경희의 연구를 비교하였다. 두 연구 모두 경상도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Diclement(1986)의 개발도구를 사용하여 24문항의 지식을 측정하였다. 윤형렬(1990)은 경상지역 68개 학과 남녀대학생 1,0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남자 547명(53.5%), 여자 475명(46.5%)였으며, 송경희(2002)는 대구지역 남녀대학생 9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0여년간 상대적으로 지식의 증가가 많이 있었던 부분은 "콘돔사용은 위험을 감소시킴"(67.3% → 80.0%), "키스로 감염가능"(34.5% → 76.4%), "접촉(touching)으로 감염가능"(66.1% → 82.4%), "개인물건을 공동사용함으로 감염가능"(54.9% → 75.0%), "AIDS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음"(28.4% → 49.6%)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이 감소한 부분은 "면역관련질환"(90.2%

→ 66.5%), "모든 동성애자는 걸리기 쉬움"(95.9% → 86.3%), "대부분 AIDS 환자는 AIDS로 사망"(79.4% → 64.0%), "AIDS 환자는 대개 다른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음"(83.1% → 69.6%), "벌레에 의해 감염가능"(72.5% → 51.6%), "음식을 통해 감염가능"(87.8% → 69.0%) 등이었다<표 2>.

2.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지식, 태도의 차이

우리나라 일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시기와 조사지역이 동일한 유연자(1996), 신영희(1996)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시기는 두 연구 모두 1995년에 실시되었고, 조사지역은 부산·울산지역으로 유사하였으나, 조사도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사문항 중 동일한 내용만을 추출하여 비교분석하였고 동일한 문항은 지식의 경우 4문항, 태도의 경우 5문항이었다. 유연자(1996)는 울산지역 10개 고등학교 남녀고등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신영희(1996)는 부산과 울산지역 남녀대학생 3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AIDS 지식에 있어서 "음식을 통해 감염가능"은 고등학생의 정답율이 73.0%, 대학생의 정답율이 87.2%로 대학생의 정답율이 높았고, "감염 혈액 수혈을 통해 감염가능"과 "콘돔으로 예방가능"도 고등학생의 정답율이 94.7%, 85.6%로 대학생의 정답율이 99.0%, 92.5%보다 낮아 대학생이 더 바르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좌식 변기 공용사용으로 감염가능"은 고등학생의 정답율이 68.4%, 대학생의 정답율이 65.4%로 고등학생의 정답율이 더 높았다<표 3>.

AIDS 태도는 분석대상의 두 연구에 동일한 문항이 AIDS 감염자에 대한 태도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AIDS 감염자는 해고되어야 함"에 고등학생은 10.5%가 동의하였고 대학생은 25.0%가 동의하였으며, "AIDS 감염자는 격리 수용되어야 함"에는 고등학생이 24.1%, 대학생의 63.6%가 공

<표 2>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의 변화*

단위: %

문항	1990	2002
1. 원인은 바이러스	79.4	72.2
2. 면역관련질환	90.2	66.5
3. 모든 동성애자는 걸리기 쉬움	95.9	86.3
4. 누구라도 걸릴 수 있음	88.5	85.8
5. 모체로부터 태아로의 감염	92.3	92.6
6. 대부분 AIDS 환자는 AIDS로 사망	79.4	64.0
7. 콘돔사용은 위험을 감소시킴	67.3	80.0
8. 감염혈액 수혈로 감염가능	97.1	95.5
9. AIDS 감염자와 주사침 공동사용으로 감염가능	94.4	95.4
10. AIDS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임	98.0	94.3
11. AIDS환자는 대개 다른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음	83.1	69.6
12. 벌레에 의해 감염가능	72.5	51.6
13. 키스로 감염가능	34.5	76.4
14. 접촉(touching)으로 감염가능	66.1	82.4
15. 개인물건을 공동사용함으로 감염가능	54.9	75.0
16. 음식을 통해 감염가능	87.8	69.0
17. 악수를 통해 감염가능	84.1	91.1
18. 스트레스는 AIDS 원인	80.9	78.6
19. AIDS 원인은 성병과 동일한 바이러스	38.9	41.8
20. AIDS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음	28.4	49.6
21. 규칙적 운동으로 AIDS 예방가능	69.8	68.2
22. AIDS는 조기발견으로 치유가능	63.8	54.0
23. 최근에 예방백신이 개발됨	37.7	41.5
24. AIDS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으며 감기와 비슷함	78.4	76.3

*각 문항에 대한 정답율

<표 3> 우리나라 일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지식의 차이*

단위: %

문항	고등학생	대학생
음식을 통해 감염가능	73.0	87.2
감염혈액 수혈을 통해 감염가능	94.7	99.0
좌식변기 공동사용으로 감염가능	68.4	65.4
콘돔으로 예방가능	85.6	92.5

*각 문항에 대한 정답율

<표 4> 우리나라 일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태도의 차이* 단위: %

문항	고등학생	대학생
AIDS 감염자는 해고되어야 함	10.5	25.0
AIDS 감염자는 격리 수용되어야 함	24.1	63.6
AIDS 감염자는 병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함	20.5	90.5
가족이 AIDS 에 걸린다면 끝까지 돌볼 것임	90.9	86.7
친구가 AIDS 에 걸리더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임	77.3	80.2

* 각 문항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

정적으로 응답하였다. "AIDS 감염자는 병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함"에 고등학생의 20.5%가 동의한 데 비해, 대학생의 90.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고등학생에 비해 대학생의 AIDS 감염자에 대한 태도가 훨씬 방어적으로 엄격하였다(표 4).

IV. 고찰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10여년간 AIDS 지식의 변화를 알아보는 항목 중 에이즈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다는 사실의 정답율은 1990년의 79.4%, 2002년의 72.2%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서울, 경기지역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영주(1996)의 76.0%와 유사하였고,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박상화(2001)가 조사한 68.4%보다 높았다.

AIDS는 면역체계에 문제가 발생한 질환이라는 사실과 모든 동성애자는 AIDS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에 대한 정답율은 1990년의 90.2%, 95.9%에 비하여 2002년에 66.5%, 86.3%로 낮아졌는데, 2002년의 결과는 2003년에 경기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강현숙(2003)의 연구 결과인 70.8%, 81.9%와 유사하였다.

AIDS는 특정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항과 모체로부터 태아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1990년과 2002년 사이에 변화가 거의 없이 각 문항에 대해 1990년에 88.5%, 92.3% 2002년에

85.8%, 92.6%를 나타내었는데,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형조(1992)의 87.1%, 95.5%와 유사하였고 치과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손해옥(1998)의 92.1%, 94.6%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대부분 AIDS 환자는 AIDS로 사망하고 다른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1990년의 79.4%, 83.1%에 비하여 2002년에 64.0%, 69.6%로 정답율이 감소하였다.

AIDS를 감염시키는 전파경로에 대한 지식에서는 감염혈액을 수혈받음으로써 AIDS에 감염된다거나(97.1%, 95.5%) 감염자와 주사침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감염된다거나(94.4%, 95.4%) 약수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84.1%, 91.1%)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1990년과 2002년 모두 90% 이상으로 많았으나, 모기와 같은 벌레에 의해 감염이 가능하다는 문항에 대해 정답율이 1990년에 72.2%였던 것이 2002년에 51.6%로 크게 감소하였고, 음식을 통해 감염이 된다는 사항에 대한 정답율도 1990년의 87.8%에 비하여 2002년에 69.0%으로 크게 감소함으로써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키스로 감염이 가능하다는 문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1990년에 34.5%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76.4%로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많은 경우에 키스로 AIDS에 감염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며, 접촉(touching)이나 개인물건 공동사용으로는 AIDS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90년의 66.1%, 54.9%에 비하여 2002년에 82.4%, 75.0%로 상승하기는 하였

으나 여전히 상당수가 접촉과 개인물건 공동사용으로 AIDS에 감염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강현숙의 연구에서 모기와 같은 벌레에 의해 감염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41.1%였으며,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상화(2001)의 연구에서도 32.3%만이 모기에 의해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제대로 알고 있어 관련사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음식물을 통해서 AIDS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강현숙의 연구(2003)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62.7%에 불과하였고 박상화(2001)의 연구에서도 58.3%에 지나지 않았다. 키스로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바로 알고 있는 경우는 강현숙(2003)의 연구에서 74.6%였으며, 서울, 경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주(1996)의 연구에서는 75.7%로 나타나 박상화(2001)의 남자대학생 대상 연구결과인 51.5%보다 높아 남학생들의 해당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타이의 직업학교에 다니는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교, 주사바늘, 모체감염으로 AIDS에 감염될 수 있다고 잘 알고 있는 경우가 86.8%였으며, 신체접촉이나 같은 물잔사용, 음식물을 함께 먹는 것으로 AIDS에 감염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81.7%로 감염경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높았다(Denise Roth Aleen, 2003). 일본 여대생의 경우 성교, 감염혈액으로 인해 감염이 된다는 응답은 95%였으며, 모기와 같은 벌레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는 응답은 11.5%, 악수를 통해 감염된다는 응답은 1%, 공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응답은 3.9%로 우리나라 대학생에 비하여 감염경로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E. Maswanya, 2000).

AIDS 원인이 성병과 동일한 바이러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1990년에 38.9%가 동일한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으며 2002년에도 41.8%만이 올바른 응답을 하였다. AIDS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 1990년에는 28.4%만이 바른 응답을 하였고 2002년에는 정답율이 49.6%로 많이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정답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규칙적 운동으로 AIDS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1990년 69.8%, 2002년 68.2%였는데, 이는 Diclemente가 1986년에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77.4%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IDS는 조기발견으로 조기치유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1990년에 비해 2002년에 증가하여, 1990년의 정답율이 63.8%였고 2002년에는 54.0%였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현숙(2003)의 54.9%와 유사한 결과로 AIDS는 아직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여 사전예방에 유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탄자니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E.S. Maswanya가 1999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초기치료시 치유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15.0%로 우리나라보다 해당 지식수준이 높았다. 최근에 예방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1990년에 37.7%, 2002년에 41.5%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일본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AIDS 예방백신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는 8.6%로 우리나라 대학생에 비하여 인식이 높았다. AIDS가 전혀 심각한 질환이 아니며 감기와 비슷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1990년 78.4%, 2002년에 76.3%가 AIDS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Diclemente(1986) 조사한 미국 고등학생의 89.9%보다 조사대상에서나 조사시기상으로 볼때 매우 낮은 것으로 AIDS가 치료가 불가능하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하리라 사료된다.

우리나라 일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지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문항 중 콘돔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정답율은 고등학생의 85.6%, 대학생의 92.5%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는데, 타이의 직

업학교에 다니는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콘돔이 AIDS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33.1%에 불과하였다(Denise Roth Aleen, 2003). AIDS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문항 중 감염자는 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고등학생은 10.5%, 대학생은 25.0%로 대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하여 AIDS 감염자에 대한 태도가 방어적으로 엄격하였는데, 이는 경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진호(2001)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42.6%가 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계희(1998)의 연구에서 23.9%가 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AIDS 감염자는 격리수용되어야 한다는 것도 고등학생은 24.1%가 동의함에 반해 대학생은 63.6%가 찬성하였는데, 이계희(1998)의 연구에서 남자고등학생들의 28.3%가 격리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전진호(2001)의 연구에서 49.8%의 대학생이 격리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대학생의 격리수용 찬성도가 마찬가지로 높았다. 친구가 AIDS에 걸리더라도 계속 우정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고등학생의 경우 77.3%, 대학생의 80.2%로 탄자니아 청소년들의 50.0%보다 높았다(E.S. Maswanya, 1999).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들의 10여년간 AIDS 지식변화를 보면, 항목에 따라 증가와 감소가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문항의 경우 정답율이 낮게 나타나 해당내용에 대한 교육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AIDS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통해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의 지식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일부 항목에서는 낮은 경우도 있었으며, 태도에서 AIDS 감염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커 해당사항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사고를 도모하는 교육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가지 제언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AIDS 관련 지식과 더불어 태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조사도구 및 내용 등이 연구마다 상이하여 비교하는데 어

려움이 있었다. 이에 적절한 조사도구를 선정하여 기존 연구와 동일한 대상 및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태도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관련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강현숙(2003). 치위생과 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도 조사 연구, 치과연구 54(5), 87-97.
2. 김순오(2003),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 연구,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21(1), 31-45.
3. 김형조(1994), 일부 대학신입생들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지식, 태도 및 관심도 조사, 가정의학회지 15(2,3).
4. 남상옥(1995). 일부지역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관한 지식에 대한 조사 연구, 중앙의학 60(12), 1057-????.
5. 박상화(2002), 남자대학생의 콘돔, 성병, 에이즈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인구의학연구논집 15, 46-55.
6. 손해옥(2001), 우리나라 치과대학생들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5(3), 287-297.
7. 송경희(2002), 일부 대학생들의 보건교육 수혜에 따른 B형간염 및 에이즈에 대한 지식도, 한국위생과학회지 8(2), 175-181.
8. 신영희(1996). 부산 및 울산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6(1), 33-41.
9. 신영희(1996), 대구 경북지역 일부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대한간호 35(1), 94-103.
10. 오세근(2001). 에이즈 감염자 및 환자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분석과 사회적 지원체계 수립방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2, 77-104.

11. 오정아(1999),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3(1), 63-76.
12. 유연자(1996), 울산지역 일부 고등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최신의학 39(9), 90-101.
13. 윤형렬(1990), 일부 대학생에 있어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관한 지식, 태도, 관심도 조사, 대한보건협회지 16(2), 31-37.
14. 이제희(1998), 대구시내 일부 실업계 남자고등학생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63(12), 875-880.
15. 이영주(1997), 일부 전문대학생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9(12), 93-105.
16. 전진호(2002), 경남지역 일개 대학생의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 한국역학회지 24(1), 37-53.
17. 조경순(1998), 대전지역 일부 간호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 혜천대학 논문집 24, 5-19.
18. 최윤희(1998), 서울시 일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에 관한 지식실태 조사연구, 인구의학연구논집 11, 75-88.
19. Denise Roth Allen et al(2003), Sexual health risks among young Thai women: Implications for HIV/STD prevention and contraception, AIDS and Behavior 7(1).
20. E. Maswanya et al(2000),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AIDS among female college students in Nagasaki, Japan, health education research 15(1), 5-11.
21. E.S. Maswanya(1999), Knowledge, risk perception of AIDS and reported sexual behavior among students in secondary schools and colleges in Tanzania, Health Education Research 14(2), 185-196.
22. Ralph J. Diclemente et al(1986), Adolescents and AIDS: A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AIDS in San Francisco,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6(12), 1443-1445.
23. WHO/UNAIDS. AIDS epidemic update: 2001